

# Dickens와 여성문제

## —Little Dorrit과 여성문학론

성 은 애

### 1. 서 론

Dickens 소설을 논하는 데에 굳이 여성문학론이란 낯선 시각을 끌어들이는 것이 일견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Dickens가 여성작가도 아니고, 그가 평생 여성문제에 특별히 남다른 관심을 기울였다는 증거도 없으며,<sup>1)</sup> 그의 작품이 소위 '여성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Dickens와 여성문학론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듯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여성문학론 자체에 대한 의구심때문일 것이다. 아직도 '여류(女流)'를 일방적으로 신비화하거나 폄하하는 글들이 양산되고 있으며, '여성문학'의 범주 하에서 진행되는 작업도 작품 속에 나타난 女性像을 연구하거나 女流作家論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여성해방'의 시각을 분명히 드러내는 논의들도 아직은 그 대상이 여성작가나 여성을 중심인물로 하는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sup>2)</sup> 이는 결국 여성문학론이 아직도 어떤 작품을 가장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 비평기준으로서의 보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정 작품의 특정 국면—흔히 '여성문제'라고 일컬어지는—을 해명하는 데만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시각이든 그것이 작품의 비평기준으로 정당화되려면 특정 소재나 특정 인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여성문학론과 일견 거리가 있어보이는 Dickens의 소설을 여성문학론의 입장에서 논하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여성문학론의 보편타당성을 증명하는 작업인 동시에 Dickens의 참된 위대성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문학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일정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Feminist Criticism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글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문학이론에서는 물론이고, 일반론의 수준에서도 상충하는 입장들이 같은 '여성해방'의 기치아래 버젓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라리 국내에서의 논의는 단출한 편인데, 외국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간간히 진행되었을 뿐,<sup>3)</sup> 우리의 현실에 맞는 독자

1) 당대여성의 억압받는 현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던 대표적인 남성이라면 John Stuart Mill(1806~1873)을 들 수 있겠는데, Dickens가 Mill의 주장에 관심을 보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스스로가 여성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도 없다. 단지 그의 편지나 기타 기록들에서 여성에 대한 그의 태도를 단편적으로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Michael Slater, *Dickens and Women*(London: J.M. Dent & Sons, 1983), Part III 참조.

2) 김영혜 외, 「여성문학론 정립을 위한 試論」,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 분과위원회편, 『여성운동과 문학』 No. 1, (서울: 실천문학사, 1988), p. 271 참조.

3) 외국의 Feminism 문학이론에 대한 자상하고 비판적인 소개는 김영희, 「여성문학론의 비판적 이해」(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8, 겨울)참조. 이외에도 부정기간행물, 『여성』의 작업을 들 수 있

P 420  
Se 69h  
1989  
C. 5

적인 여성문학론의 정립은 요원한 상태이다.

Dickens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 사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심리분석 내지 정신병리학의 방법으로 Dickens를 조명하는 경향과 더불어서, Dickens의 생애와 그가 관계했던 여성들에 대한 전기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작품 속의 여성상과 그에 대한 Dickens의 태도를 해명하려는 시도들이 유행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Dickens 비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sup>4)</sup> 대부분이 전기적 자료와 작품 속의 여성을 연결시키는 데에 주력하는 이러한 비평이 과연 '여성해방'을 지향하는가는 차치하고라도, 작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심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Dickens에 대한 Feminist Criticism의 또 다른 경향은 당대의 이데올로기, 특히 여성에 관련된 Victoria朝의 통념이 Dickens의 작품에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대부분은 여성에 대한 Dickens의 태도가 Victoria朝의 통념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예컨대 Charlotte Brontë나 George Eliot 같은 여성작가와 비교하여 남성작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들을 지적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sup>5)</sup>

이 글에서는 소위 '작품 속의 여성상'에 대한 분석이 지니는 치명적인 한계, 즉 그러한 여성상의 구현이 작품 전체의 예술적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극복하도록 노력하면서 *Little Dorrit*를 중심으로 Dickens에 대한 '여성해방적 읽기'를 시도할 것이다. *Little Dorrit*는 여러 계층의 삶이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면서 전개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닌 작품이만큼, 무엇보다도 각 계층의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이 같은 계층의 남성에게 비해서 어떤 특수한 양상을 띠는가, 그리고 그것이 그 계층 전체의 삶을 제대로 보여주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당면 논의의 골격이 될 것이다. 한편 *Little Dorrit*를 Dickens 최대의 역작이라고 평가하는 F.R. Leavis의 *Little Dorrit*論은 여러모로 여성문제와 문학적 성취를 연관짓는 데 흥미로운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배경에 깔리는 기준이 될 것이다.<sup>6)</sup>

## 2.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와 여성

여성억압을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각종 사회제도와 통념가운데 어느 것이 특별히 부르조아 사회의 산물이고 어느 것이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여성을 가정사에 묶어두고 장식품같은 존재로 취급한다든가, 예비 노동력 내지 재생산 담당층으로 놓아두는 것은 비단 부르조아 사회의 현상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과정의 사회

으나, 본격적인 이론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 글의 기본입장이 대체로 이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 4) Michael Slater, 위의 책, 특히 Part I은 이러한 경향의 업적을 요약하여 한데 정리해 놓은 듯하다.  
 5) Merryn Williams, *Wome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London: Macmillan, 1984) 참조. Michael Slater는 Dickens가 후기로 가면서 점점 더 여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당대여성의 현실이 탁월하게 포착되었음을 지적하지만, 결국 Dickens의 이상적 여성상은 당대의 통념에 대개 들어맞는 것이었다고 결론짓는다. Michael Slater, 위의 책, pp.301-372 참조...  
 6) F.R. & Q.D. Leavis, *Dickens the Novelis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0), pp.282-359.

화, 집중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가정이 생산소비단위에서 순전한 소비단위로 변모한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서 가정사에 대한 여성의 '신성한 의무'가 더욱 강조된 것만은 틀림없다.<sup>7)</sup> '집안의 천사'로서의 여성에게는 완전한 복종, 헌신과 부드럽고 우아한 품가짐, 장식적인 교양이 요구되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입는 여성은 소수였고 다수의 노동계급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유지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임금 상승 요구에 대한 안전판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sup>8)</sup> 그러나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이미지는 모든 계층에게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졌고, 따라서 당대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sup>9)</sup>

Dickens의 작품에서 이러한 천사같은 여성상의 대표적인 경우로 흔히 지적되는 것이 *David Copperfield*의 Dora와 Agnes이다. 그러나 여기서조차도 Dickens는 주인공 David로 하여금 Dora를 선택케 하여 실패를 맛보게 만든다. Agnes가 Dora와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인물인가는 역시 문제로 남긴 하지만, Dickens는 Dora를 통하여 남성위주의 통념에 의하여 '귀여운 여인'으로 길들여져 성장한 여성이 남성 자신에게도 도리어 일종의 구속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셈이다.

*Little Dorrit*에 오면 이러한 유형의 여성상은 Pet Meagles와 Flora Casby에서 다시 나타난다. Pet의 경우는 그녀가 겪는 불행한 결혼생활과 Meagles 부부의 물이해가 중점적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작가는 Meagles 부부로 대표되는 부르조아의 의식에 반항하는 Tattycoram을 등장시켜 Pet와 대비시킴으로써 Meagles류의 의식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Tattycoram이 Miss Wade에게서 다시 Meagles 부부에게로 돌아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Tattycoram의 반항은 결국 Pet에게 강제되는 대안없는 무력감과 절망, 그 모든 문제를 은폐하려는 위선 등에 대한 혐오이기 때문이다. 어떤 독자에게는 Tattycoram의 귀환이 부르조아적 사고방식에 대한 투항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Tattycoram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Miss Wade가 오히려 오기와 집념으로 뭉쳐진 비창조적인 삶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 Tattycoram의 귀환을 다소 정당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그것은 Miss Wade에 대한 작가의 평가가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볼 때 너무 가혹하고 남성위주의 편견에 침윤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과, Tattycoram에게 Meagles나 Miss Wade 아닌 제 3의 길은 없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2부 33장에서 Tattycoram이 돌아와서 Meagles 부부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자.

'I am bad enough, but not so bad as I was, indeed. I have had Miss Wade before me all this time, as if it was my own self grown ripe—turning everything the wrong way, and twisting all good into evil. (….) I only mean to say, that, after what I have gone through, I hope I shall never be quite so bad again, and that I shall get better by very slow degrees. I'll try very hard. I won't stop at five-and-twenty, sir. I'll count five-and-twenty hundred, five-and-

7) Laurence Learner ed., *The Victorians* (London: Methuen, 1978), pp.174-175 참조.

8) Karl Marx, *Capital* Vol. 1, Trns. Ben Fowke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6) pp. 517-21 참조.

9) Laurence Learner ed., 위의 책, pp.174-176.

twenty thousand!' (Part II, ch. 33. p.880)<sup>10)</sup>

이 말은 Tattycoram의 입장에서는 진심어린 회개요, 앞날에 대한 결의이지만, 사태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 그녀의 기질이나 객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다시 Meagles 부부의 보호를 받으며 '25까지만 세는 것이 아니라 2,500, 25,000까지도 세'는 인내심을 발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경제적으로 보호해 줄 후견인을 마다하고 곧장 사회로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이 장면의 핵심은 Tattycoram의 귀환 자체가 독자의 마음에 드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화해의 성격을 작가가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화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Tattycoram의 회개(?)에 대하여 Mr Meagles가 취하는 태도를 작가가 전혀 묘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즉, 작가는 이 장면을 Tattycoram과 Meagles 내외와의 감동적인 화해 장면으로 연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대신에 Meagles가 Amy Dorrit에게 딸 Pet에 대한 허전한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그 Chapter가 맺어지는데, 여기서 이름그대로 애완동물처럼 길러진 부르조아의 딸 Pet의 불행과 그 계층의 위선을 본능적으로 거부하였으나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자신이 혐오하였던 질서 속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던 Tattycoram의 좌절이 Meagles가 가진 허위의식과 그릇된 시혜를 축으로 하여 대비되는 것이다. Meagles는 딸의 결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화한다.

'but she's very fond of him, and hides his faults, and thinks that no one sees them—and he certainly is well connected and of a very good family!' (Part II, ch. 33. p.883)

그런데 Meagles는 Amy Dorrit를 보고 딸을 떠올리지만, 사실 Pet의 운명과 좀더 연관이 깊은 것은 Flora의 삶이다. 어찌보면 Flora는 Pet가 장차 겪게 될 운명을 좀더 회화화된 형태로 보여주는 듯하다. Arthur Clennam이 진지한 인물로 묘사되면 될수록 그가 젊은 시절에 연모하였던 Flora가 이토록 우스꽝스럽게 그려졌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인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Flora의 삶이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닐 수 있는 단서를 찾게 된다. Arthur는 Flora를 재회하는 순간 서글픈 마음과 우스운 마음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Part I, ch. 13. p.196), 작가는 여기서 독자에게 Arthur와 같은 정도의 동정심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Flora의 삶이 Casby류의 삶이 지닌 어찌할 수 없는 억압적 성격의 산물이라는 암시는 주고 있다. Flora가 그냥 수다스럽고 주책맞은 중년여자라면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sup>11)</sup> 심성이고운 여성으로 그려진다는 점 등은 그녀의 아버지인 Casby를 거의 일방적인 풍자의 시선으로 그려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즉, Bleeding Heart Yard를 관리하며 거의 무위도식하는 계층이면서도, 그 계층에 여성으로서 속한다는 것은 남다른 고뇌와 좌절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Flora의 인물 설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F.R. Leavis는 Flora Casby야말로 Dickens가 Henry James나 Tolstoy와는 다른 종류의 창조적 작가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면서 Flora의 언어가 詩的이라고까지 말한다.<sup>12)</sup> 사실 Flora만큼 희극적인 효과를 내면서도 동시

10) Text로는 Charles Dickens, *Little Porrit* (Harmondsworth: Penguin Books; Rpt. 1982)를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는 괄호안에 장수와 면수만 표시함.

11) M. Slater, 위의 책, p.246.

12) F.R. & Q.D. Leavis, 위의 책, pp.316-318.

에 공감과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Leavis가 다소 과장하고 있는 점은 Flora가 Amy와 비슷한 종류의 심성—따라서 비슷한 종류의 창조성—을 지녔다는 것인데, 물론 Flora가 선한 여자로 그려졌음에는 이론이 없겠으나, 과연 Flora의 삶이 그리 창조적인 것으로 그려졌느냐는 의심의 여지가 있겠다. 그녀의 장광설이 때로 현실의 핵심을 꿰뚫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광설이 무책임한 수다이며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Flora의 착한 심성과 Amy의 덕성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는 다음 장에서 살펴졌거니와, Flora에 대한 지나친 폄하도 지나친 찬사도 경계하는 입장에서는 Leavis의 평가가 오히려 Dickens의 맹렬한 면, 즉 Flora를 Casby와 질적으로 다른 인물로 그려내면서도 어디까지나 Casby의 계층에 속하여 그로부터오는 제약때문에 왜곡된 삶을 사는 인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점을 간과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 3.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계층 상승

Dickens 당대의 여러 소설들 속에서 우리는 여성에게 부과된 갖가지 제약과, 그 제약을 극복하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여 분투하는 일군의 여성상을 만나게 된다. Jane Eyre가 그러하고, 뚜렷이 부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George Eliot 소설 속의 여러 여성인물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Dickens의 작품들을 보면 대개 사회적인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위치에 불만을 가진 여성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Bleak House*의 Mrs. Jellyby는 자선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을 엉망인 채로 내버려 두며, *The Old Curiosity Shop*의 Mrs. Jarley도 순진무구한 Little Nell의 이미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sup>13)</sup> *Little Dorrit*에서도 Miss Wade라는 여성은 음울하고 집요하고 섬뜩할 정도로 세상에 적의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전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여기서 Dickens는 따로이 *The History of a Self-Tormentor*라는 章을 할애하여 Miss Wade의 이야기를 1인칭 서술로 풀어어나가고 있다. 남성작가로서 여성을 1인칭으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것, 그러면서도 그 여성의 심리에 대한 적절한 공감과 비판을 보여준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우기 Miss Wade처럼 애초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던 인물의 삶을 다시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독자들은 Miss Wade의 이야기에서 일말의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고 억압받아야 하는 현실에서는 Amy Dorrit 같이 되기보다 Miss Wade나 Tattycoram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녀의 성장기는 여자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껏해야 가정교사라는 직업밖에 구할 수 없었던 Jane Eyre를 연상시키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iss Wade가 여전히 기괴하고 부정적인 인물로 비쳐지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Miss Wade라는 인물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 여러 평가자들의 말처럼 Dickens의 편견 탓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살피는 일일 것이다. 이를

13) Nina Auerbach는 Mrs Jarley라는 인물이 천사같은 Nell과 대비되어 아주 강력하고 생기에 넘치는 창조자(creator)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Madame Tussand에 대한 Dickens의 애매한 감정이 Mrs Jarley의 형상화로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해석도 역시 Nell에 비하여 Mrs. Jarley가 부정적인 인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한다.

Nina Auerbach, *Women and the Demon*(Harvard UP: Cambridge, 1982), pp.195-196 참조.

평가하는 첫번째 단서로는 비슷한 부류의 남성인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Rigaud(Blandois)는 신사가 되고 싶어하는 악한인데, 그는 너무나 동정의 여지없는 악당으로 그려져서 도리어 작품을 통속화할 정도이다.<sup>14)</sup> 이러한 Rigaud와 Henry Gowan, 그리고 Miss Wade가 우연히 연관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는 이들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때로 악덕 그 자체인 것처럼 과장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과장과 풍자의 정도가 여성이라고 해서 더 부당하게 심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Wade 부류의 인간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려야 하느냐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Dickens의 소설에서 자신이 받아온 사회적 제약에 불만을 느끼고 다소 억지스러운 방법으로 계층 상승을 하거나 신사연하는 인물은 대체로 악한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된다. *Oliver Twist*의 Monks나 Noah Claypole이 그러하고 *Great Expectations*의 Pip이 그러하다. 그런데 Monks나 Claypole이 악한으로 과장되어 소설을 통속화시킨다면, Pip은 그의 헛된 이상과 좌절을 통해서 당대에 신사의 이상이 지녔던 의미를 음미하게 한다는 차이를 보이는 점이 중요하다. *Little Dorrit*에서는 그러한 이상과 질서가 사람들을 어떻게 제약하고 파멸케 하는가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보여준다 하겠는데, Miss Wade는 그 중 공감받을 만한 인물들의 부류에 속할 뿐이다. 사실 Mrs General이나 Mrs Merdle에 비해 보면 Miss Wade는 그래도 동정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며, Fanny Dorrit에 비해서 보아도 풍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진지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Leavis는 Miss Wade와 Gowan을 연결시켜 Amy Dorrit와 대비하면서 전자의 속성을 '파괴적'이라고 규정하는데, 자신의 불운을 타인에 대한 지배로 보상하려는 Miss Wade의 의도가 Gowan의 음울하고 비창조적인 허무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하겠다.<sup>15)</sup>

그러나 여기서 Leavis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Miss Wade의 파괴적이고 히스테리칼한 지배욕이 사실은 그녀가 '불행히도 바보가 아니었던'(p.725) 탓이고 더우기 그녀가 여성이었던 탓이라는 점이다. 창조적인 예술가의 속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던 Doyce 조차도 Circumlocution Office의 복잡한 절차가 지배하는 영국 땅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정당한 통로를 찾지 못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지배욕으로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우기 남성에 비하여 사회적인 능력 발휘의 기회가 적은 여성의 경우라면 같은 계층의 남성에 비하여 더 자상하고 공감어린 취급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이점을 Leavis는 Dickens보다도 등한시하는 듯이 보인다.

사실 *Little Dorrit*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문제삼는 경우 최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여성인물이 남성인물에 비하여 좀더 공감어린 시선으로 그려진 것이 사실이다. Rigaud

14) 1부 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Rigaud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한 느낌을 주지만, 그의 허풍이 세상에서 그런대로 통하기도 한다는 다음 귀절은 Rigaud의 심성과 야욕이 단지 개인적인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는 뒤로 가면서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는 완전히 악당으로 그려지게 된다.

He had a certain air of being a handsome man—which he was not; and a certain air of being a well bred man—which he was not. It was mere swagger and challenge; but in this particular, as in many others, blustering assertion goes for proof, half over the world. (Part I, Ch. 1. p.49)

15) F.R. & Q.D. Leavis, 위의 책, pp.305-311 참조.

나 Gowan에 비하면 Miss Wade가, Tip Dorrit에 비하면 Fanny Dorrit가, Mr Flintwinch에 비하면 Affrey가 그러한데, 이는 의식적이든 아니든 Dickens가 여성들의 처지가 무엇인가 남성에게 비해서 복잡한 것임을 나타내주었다는 얘기도 된다. 여기서 주로 다루었던 Miss Wade만 해도 Gowan의 삶보다는 무엇인가 더 꼼꼼히 따져볼 구석이 있음을 작가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그녀가 남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무서운 집념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다른 인물들 통해서라도 조금 더 부각시켰더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구태여 Miss Wade 같은 인물에게서 구현될 필요는 없었으나, 가령 Doyce와 같은 인물이 지닌 미덕이 여성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Leavis의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 인물 가운데에서 Doyce의 창조성과 같은 성질의 미덕을 보이는 인물은 Amy Dorrit일 것이다.<sup>16)</sup> Leavis는 이 두 인물이 창조적 예술가 자체는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창조성을 어느 정도는 지니고 있다고 본다. Leavis는 작가가 이 두 사람울, 혹은 Clennam과 Amy Dorrit의 결혼을 이 현실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으로 의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특히 Amy Dorrit가 보여주는 미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Leavis와 Dickens가 Amy Dorrit 및 그녀의 덕성에 보내는 공감과 관심이 어느 정도나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본 연후에야 Miss Wade의 인물 설정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4. 여성의 창조성

*Nobody's Fault*에서 *Little Dorrit*로 제목이 바뀌었다고 할 때, 그것은 독자의 시선이 Amy Dorrit라는 인물에게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sup>17)</sup> 그러나 이 방대한 양의 장편에서 Amy Dorrit가 얼마나 중심적인 인물인가를 따지는 일은 쉽지 않다. Marshalsea 감옥과 Circumlocution Office, Society, Bleeding Heart Yard 등은 어느 것이 더 중심적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얽혀 있는데, Amy Dorrit는 이 모든 것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그 얽힌 고리들의 중심인 것은 아니다. 이렇듯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전체 줄거리의 주요한 축이면서도, 모든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며 어떤 총체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도록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Amy Dorrit의 애매한 위치를 염두에 두고서야 우리는 그녀의 심성과 작가의 공감어린 시선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Amy가 루카치적 의미에서 전형적(typical)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녀는 우선 너무나 순진무구하면서도 사물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자신의 애정과 소망을 표현할 줄 알고, 그 소망을 실현하는 행동력도 지녔다. 이 모든 덕성은 그녀의 성장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이런 종류의 심성이 Amy에게서 보이는 것이 매우 특별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점을 작가 자신도 의식하고 있다.<sup>18)</sup> 그런데

16) 같은 책, p. 297, p. 313 et passim.

17) 이 과정에 관해서는 John Butt & Kathleen Tillotson, *Dickens at Work* (London: Methuen, Rpt. 1982), pp. 222-233 참조. 그러나 여기서는 *Little Dorrit*와 *Oliver Twist*, *Little Nell*을 같은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18) Part I, Ch. 7, p. 111 등 참조.

...It is enough that she was *inspired* to be something which was not what the rest were, and to be that something, different and laborious, for the sake of the rest. (강조는 인용자)

사실은 Amy의 좌절과 고통과 인간다운 희로애락이 묘사되지 않는 게 아니다. 단지 그것이 지극히 절제된 어조로 서술되어 독자의 관심이 그녀의 덕성 쪽으로 쏠릴 뿐이다. 작가는 양보절을 사용하여 '이러이러한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러저러한 태도를 견지하였다'는 식의 어투를 구사한다든가, 보통사람같으면 수십번도 더 발설하였을 법한 항변을 내면의 독백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보여주시는 하되 되도록 단순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자면 작가는 Amy라는 인물이 어떤 종류의 중요한 덕성을 집중적으로 구현하면서도 한 인물로서의 생동감을 잃지 않게 하려고 여러가지 배려를 한듯하다. (Part II. ch. 5. p.531 등 참조)

이러한 면에서 Leavis가 Amy Dorrit와 Little Nell을 비교하고 양자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물론 Nell이 Amy보다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르며, 주위의 상황이나 인물들이 너무나 그로테스크하게 설정되어 Nell의 순진성이 그와 대조적으로 부각되어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전후사정을 감안하더라도 Nell의 덕성이 주변환경과 관계없이 원래 그러한 것으로 제시되고 그 슬한 시련에 직면해서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 주는데 반해서, Amy의 덕성은 이미 굉장히 특이한 경우임이 전제되어 있는데다가 그저 주어진 상황을 견뎌나가는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상황 자체를 바꾸어보려는 적극성을 지녔고 그것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세세한 생활사를 통하여 그려진다는 점에서 Nell의 덕성보다 한길 앞선다.

그러나 Leavis가 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Amy의 덕성이 관념적이고 판에 박은 듯한 선(善)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감수성과 인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인식이 곧바로 기술주의 -벤삼적 문명의 핵심에 대한 심도있는 항거를 보여준다는 점이다.<sup>19)</sup> Amy는 독자들에게 극중 다른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다.<sup>2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Amy는 Gowan이나 Merdle류의 사람들이 판치는 이 현실에 대한 대안일 수 없다. Amy와 Clennam의 결혼은 단지 개인적인 해결일 뿐이고 이 점은 작가 자신도 그리고 Leavis도 깊이 의식하고 있는 바이다.

Amy Dorrit의 이러한 위치를 염두에 둔다면 그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는 그녀의 헌신적인 삶과 착한 심성, 타인의 고통에 대한 심오한 이해 등이 당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천사의 이미지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는가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또 하나의 창조적 삶으로 제시된 Doyce와 비교해 볼 때 확실히 Amy는 스스로의 성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게 그녀가 주는 도움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확인하곤 한다(Part II, ch. 3 참조). Amy가 유독 자신만의 소망을 가진 것은 Arthur Clennam에 대한 연정 정도인데, 이러한 Amy의 이타심이 Leavis의 말처럼 'Selfhood'의 차원을 벗어나는 참다운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점이 유독 여성 인물에게서만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여성의 선진성을 말하면서도 도리어 그 선진성의 원천을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추출한 '여성성'에서 구하는 꼴이라 할 것이다.

물론 Amy가 마냥 수동적이고 헌신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매우 단호하고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생활력이 강하고 단호

19) F.R. & Q.D. Leavis, 위의 책, pp.297-298.

20) Leavis는 Amy와 Gowan, Mrs Clennam, Pet, Miss Wade 등의 인물을 대비시켜 검토하면서 그녀의 그녀다움 자체가 창조적이라고 말한다. 같은 책, p.311 et passim,



하며 십지가 굳은, 그러면서도 반항적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자신의 현명함을 타인을 위하여 발휘하는 여성이야말로 남성들이 실제의 삶에서 요구하는 ‘천사같은’ 여성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my Dorrit는 Little Nell보다는 Agnes에 가까운 인물이며, Miss Wade나 Tattycoram의 반대편에 선 여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Amy Dorrit의 단점이나 한계를 이리저리 짚어내는 것으로는 문제를 호도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Amy Dorrit의 덕성이 여성특유의 것이라기보다 민중적 심성의 발현으로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Cavalletto가 보여주는 쾌활함이나, 가난하지만 즐거운 Plornish 일가의 저녁 한때 등은 Amy Dorrit의 미덕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민중들의 활기가 다른 어떤 통로로 발휘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다소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그저 개개인의 착한 성품과 서로를 위하는 마음씨 정도가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창조성의 일면이고 더우기 그것마저도 끊임없이 Merdle류의 바람에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러한 덕성이 Amy Dorrit와 같이 애초부터 비범하게 설정된 인물에게서 구현된 것이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Amy Dorrit는 Dickens의 다른 작품에 나오는 ‘천사같은’ 여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탓에 종종 비슷한 부류의 인물로 치부되지만, 그녀의 실제 삶 속에서 민중적인 덕성을 구현하고 있는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애초에 아주 특이한 인물로 설정되었고 어떤 면에서 특정 덕목—그것을 Leavis는 삶의 창조성이라고 설명한다—을 체현하는 인물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존의 천사같은 여성상과 민중적 덕성, 그리고 창조적 삶이라는 요소를 무리없이 결합하는 일이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 5. 남는 문제들—맺음말

채무자 감옥이 Dickens의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가와 작품 속에서의 Marshalsea 감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다른 문제이듯이, Dickens의 어머니와 누이들, 아내와 처제, 연인들이 그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각종 여성인물들이, 나아가서는 남성인물들이 하는 역할을 점검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현대의 시각을 통해서 그 시대 여성들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작품을 검토한 결과 우리는 Dickens가 특히 그의 걸작들에서는 비교적 남성중심의 편견에서 벗어나 있고, 이것이 좁은 의미에서의 ‘여성문제’에서 드러나기보다 특별한 ‘여성문제’에 얽매이지 않음을 통해서 더 잘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sup>21)</sup>

그러나 여전히 몇가지 문제는 남는다.

첫째로 Amy Dorrit의 한계를 작가 자신이 잘 인식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그것이 작품 전체에 일관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애초에 그녀를 다소 이상화하려는 의

21) 특히 여성의 삶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이면서도 어떤 남성인물들에게는 무분별한 탐닉의 경향을 보이는 G. Eliot와 비교해보면, Dickens의 이러한 면은 더 잘 드러난다. 물론 Dickens가 ‘천사와 악마’라는 이분법을 여성인물에게 곧잘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경우에는 남성인물들도 똑같이 ‘신사와 악당’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작가의 시각 전체를 문제삼아야 할 것이지, 남녀간의 균형감각 상실을 나무랄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투화의 전형적인 예로 *The Old Curiosity Shop*이나 *Oliver Twist* 같은 초기작을 들 수 있다.

도와 현실적인 힘을 가진 인물로 만들려는 의도가 뒤섞인 결과라 하겠는데, Leavis는 Little Nell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탓으로 후자의 측면을 강조하여 그녀의 비전형적 성격을 간과하고 따라서 그녀의 한계도 축소시켜버렸다.

둘째로, Amy의 덕성이 여성특유의 것으로 신비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민중적 심성의 발현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의 애매함은 민중적 활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적절할 대안의 부재라는 당대의 상황 속에서 Amy Dorrit의 착한 심성이 대안 모색의 일부인지, 아니면 암울한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소한의 자구책인지 혹은 암담한 상황을 그저 견딜만한 것으로 윤색하는 최면제인지가 분명치 않은 데서 발생한다.

셋째로, 이러한 애매함은 다른 여성들, 특히 자신의 삶에 절망하고 그에 대하여 강한 반항심을 가진 여성들을 어떻게 그려야 타당한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것이 애초에 이 글의 목표였으나 애매함은 그대로 남긴채 몇가지 해명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데 그치고 말았다. 특히 Amy Dorrit의 덕성과 민중성의 관계는 그녀가 여성이기때문에 더더욱 복잡한 논의를 요구하는바, 추후의 연구과제로 미루어 놓는다.